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1. 21 (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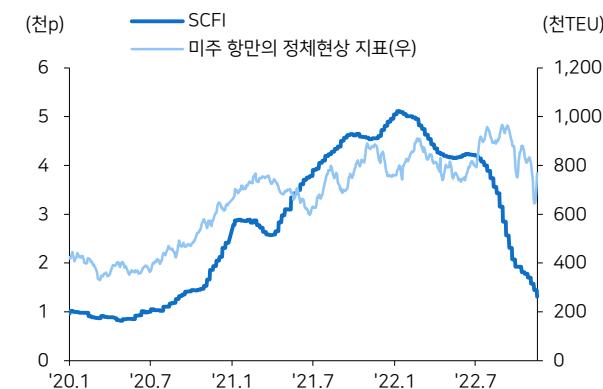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189.0p(-3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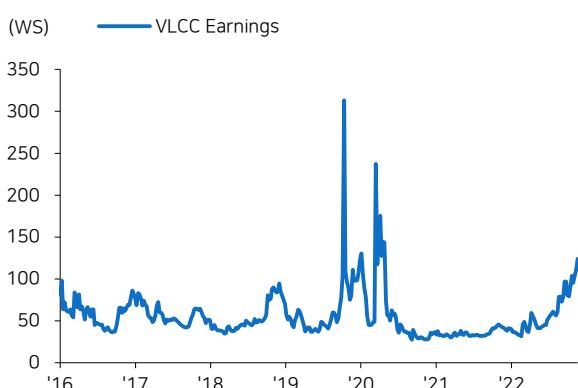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1,306.8p(-136.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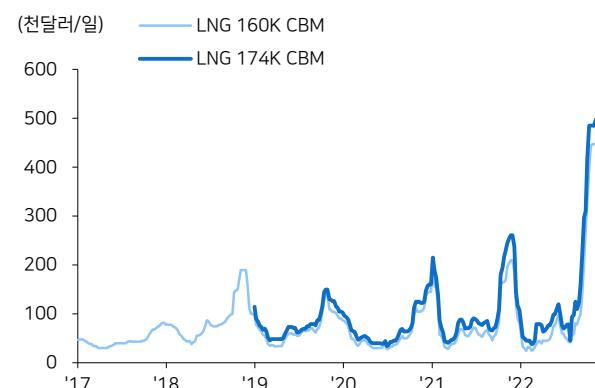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124.0p(+13.9p WoW)



#### LNG Spot 운임

445.3p(-2.3p WoW)  
480.0p(-17.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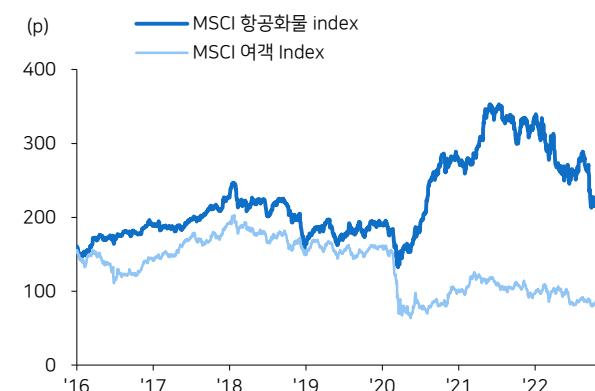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64.6p(+0.1p WoW)



#### 항공시장 지표

251.2p(+3.3p DoD)  
94.0p(+0.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대우조선 드릴십 재고 1척 매각 성공

대우조선해양이 웨스트 아퀼라가 반소한 드릴십 'Hull 3623'을 2억달러에 매각 성공했다고 보도됨. 트랜스오션의 합작 투자사 'Liquila Ventures'와 계약을 체결함. 해당 드릴십은 고사양의 1,400톤급 후크로드 초심해 드릴십으로 알려짐. (더 구루)

### Green light: FERC gives go-ahead to Commonwealth LNG

미국 연방에너지위원회(FERC)가 Commonwealth LNG 수출터미널 공사 5개년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됨. 루이지애나주에 8.4MTPA 규모 터미널을 구축하려는 계획임. 최근 2년간 수출터미널 프로젝트가 승인된 적이 없다고 알려짐.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분기 첫 가동될 예정임. Commonwealth LNG는 이미 호주 Woodside Energy에 2026년부터 20년간 2.5MTPA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짐. (Upstream)

### Capesize bulkers sink amid China uncertainty while smaller ships idle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지난주 capesize 단기운임이 하락했다고 보도됨. Capesize 5TC는 금요일(18일) 기준 전주대비 27.3% 하락한 바 있음. C5 서호주-칭다오 철광석 수출항로 운임은 11.3% 하락했는데, 서호주 광산업체들의 수요에도 중국 불경기 지속에 대한 우려가 운임에 하락 압력을 주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Bulker newbuild ordering to accelerate next year, Bimco warns

Bimco가 2023년에는 벌크선 발주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2024년 인도 예정선박이 19년래 최저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모든 사이즈의 벌크선이 일제히 발주가 개시될 것으로 보도됨. 현재 벌크선 오더북은 현 운항선대의 6.9%에 불과하다고 알려짐. 2021년에는 발주량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경제성장과 대체연료에 대한 우려로 발주량이 감소한 바 있음. (Tradewinds)

### Aframax tanker rates surge in scramble for tonnage

기상악화로 인한 자연으로 선복이 부족해지며 Aframax 유조선이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됨. 평균 Aframax 운임은 전주대비 약 32% 상승했다고 알려짐. 아시아지역은 운임이 낮지만, 북해, 지중해, 캐리비안해 등은 월등히 비싸다고 언급됨. 겨울성수기인 탓도 있는데, 정유업체들의 강한 수요, 기상악화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가 상승압력도 있었다고 언급됨. (Tradewinds)

### 북미수출항로 10월 물동량 中 부진에 두자릿수 감소

북미수출항로 물동량이 1위 선전국인 중국의 침체로 18% 감소한 149.3만TEU로 집계되었다고 보도됨. 베트남발 물동량이 50%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으나, 최대 선적국인 중국 물동량이 30%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함. 1~10월 누계 물동량도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한 바 있음. 미국의 10월 총 컨테이너 수입량도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213만TEU로 2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임. 품목별로는 가구류가 15% 감소, 기계류가 11% 감소, 전기전자제품이 13% 감소했다고 알려짐. (코리아쉬핑가제트)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